요-모세 혹은 모-요셉

(출2:1~10)

1.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2.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4.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7.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8.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삯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요-모세 혹은 모-요셉>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요-모세 혹은 모-요셉'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이상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내용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요-모세는 요셉과 모세를 합친 이름인데, 모세가 뒤따라 나오면 서운할 수도 있어서 혹은 모-요셉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캐나다의 백인 목사님을 만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나누던 차에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모

세 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이 윤 씨입니다. 제가 한국 이름을 알고 있고 후배인데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한 방면으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목사님을 진즉에 알고 있었는데 이름을 '모세 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능력도 있고 재미있으시고 활발하신 목사님이시므로 그 성격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느껴지지만 어쨌든 의외였고 '이제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되면서 캐나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이름을 말하지 않고 모세 윤이라고 소개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성격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하시던 부목사님이 계셨고, 또 은퇴 장로님 중에서 극진히도 교회를 생각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의 외손자가 유학을 와있는데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요셉이에요. 사돈댁은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이 이름은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밴쿠버에서 만났던 장로님의 외손자인 요셉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 장로님의 외손자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 느껴졌고,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으신 부목사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킨 영적 지도자가 모세이기에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목사님의 마음에 기대감과 희망사항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짬짜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짜장을 먹어야 하나 짬뽕을 먹어야 하나 항상 고민인데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메뉴가 짬짜면인데, 그릇이 절반으로 갈라져서 반쪽에는 짬뽕이, 다른 반쪽에는 짜장이 담겨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름을 지으면서 모세라고 지어야 될지 요셉이라고 지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요셉도 탁월하고 모세도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모세와 요셉이 통합됩니다.
모세와 요셉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핵심은 같지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서, 모세와 요셉 중에서 이름을 짓기가 참 곤란한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자기 이름을 모세로 짓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거나 손주가 생겨서 이름을 짓게 되면 모세보다는 요셉으로 지으실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름을 모세나 요셉이라고 짓지 않아도 영적인 내용으로 보면, 십자가를 통과하며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모든 선민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한 닉네임이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짬짜면처럼 모-요셉이든지, 요-모세가 되는 것이 참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요셉을 알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이 어떤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알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선민의 관계 양상이 밝혀진다는 것이고 '모-요셉이고 요-모세'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모-요셉, 요-모세'가 나의 이름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름이 어떻게 나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드디어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모세 이야기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과 비교를 합니다.
요셉과 모세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요셉은 히브리 떠돌이 집안의 열한 번째 아들로서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세는 히브리 떠돌이 집안에서 태어난 노예 신분의 아기로 태어나는데, 당시에 모든 히브리 남아들은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그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처지에서 출발해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하나는 총리가 되고 하나는 왕자가 됩니다. 이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뚜렷하게 알 때에 모세와 요셉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두 특징이 십자가를 통해서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사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모-요셉이고 요-모세'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놓고 차이점을 한 번 생각해보면 두드러진 차이점이 보이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17세에서 시작하는데, 17세라는 것은 자아의식이 분명할 때입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모든 고난의 과정이 요셉의 의식이 참여되고 있는 상태로 진행되다가 총리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왕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데, 그것도 남아학살 정책으로 학살되었어야 하는 대상으로 태어나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생모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자라서 왕궁으로 되돌려진 것이 2~3살 정도로 생각되고, 그렇게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하고, 왕자가 되는 과정까지 햇수도 짧지만 모세 자신의 의식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현재진행을 계속 유지해나가면서, 분노가 생길 환경이 되고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 모든 감정에 휩싸이고 자기 스스로 복수나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현재진행형으로 유지해나가면서,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서는 쌍방의 소통이 계속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만을 따라서 살고 자기의 의견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아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의식 참여의 정도가 제로인 상태에서 소통 자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100%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서로 오고 간 것이 없고, 모세는 자기의 주체성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주체성만 100% 드러나게 되므로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

의 독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것의 차이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고, 모세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그 쓰시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고 쓰임의 목적이 다른데, 이 다른 두 목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합되어 나타나므로 우리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모세가 굉장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기발하심입니다.
지금 바로 왕이 애굽의 18왕조인 투투모스 1세라고 생각됩니다.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힉소스 왕조인데 그 왕조가 망하고 18왕조가 들어섰는데, 그 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투모스 1세가 남아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정책을 선포했는데 그 왕의 왕궁에 왕자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도록 기가 막힌데, 모세가 왕자가 된 것은 더 기발합니다. 나일강에 역청바구니를 떠내려 보냈는데 공주가 오고 또 생모가 젖을 먹이게 되고 왕자로 입적이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이 삶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고, 모세가 왕자가 되는 것이 길입니까?
세상에 이런 길은 없어요. 그 어떤 현자도 생각해 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다”라고 하는데, 엿을 살 때 고물 값을 쳐주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고 엿을 주는 것도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 기분 좋으면 많이 주고 나쁘면 적게 주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니 길 찾아 삼만 리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발함은 무한한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가 되게 하시는 길은 이것 밖에 없었을까요? 천 가지, 만 가지로 하나님은 해내실 수 있는데 이 길을 택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상에 보내시고 모세의 의식은 전혀 참여되지 않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면서 왕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모세는 2~3살 때에 몰랐던 것이지 후에 알았고, 이 출애굽기를 쓴 당사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생모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내일 읽을 부분에 보면 히브리인에 대해서 동족의식을 갖게 되는데, 당연히 히브리인인 자기가 왕자가 된 것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막을 다 이야기해주었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요셉과의 차이는 무

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고 살았던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소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주체성의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체성은, 스스로 생각하심, 스스로 판단하심, 스스로 계획하심, 스스로 소원하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부터 만민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였더니 그 주체성 안에 들어있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땅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소통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왕자가 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분명히 모세의 이야기지만 모세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과 요셉의 현재진행형으로 유지되는 소통이 보이는데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 앞에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요셉의 역할은 하나님의 주체성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요셉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져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모세는 출애굽으로 백성들을 구원시키기는 하지만 모세라는 사람의 주된 존재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선민들에게 살아있는 분으로 계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요셉처럼 되라고 하는 권면을 모세의 생애 자체가 갖고 있고, 모세의 생애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요셉처럼 되라는 권면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만인을 구원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요셉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한 것으로 자신의 생애에 국한 됩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권면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요셉이 했던 그런 하나님과 소통의 현재진행형을 각자가 하라는 것이고, 살아계셔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소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째로 소개해주고 계시해주고 드러내주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주체성의 내용을 땅에 실현시켜 나가시고, 모세를 통해서는 주체적인 존재이신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을 각 사람에게 드러내주십니다.
사실 모세가 한 일은 소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만, 소통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듣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가라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머물라면 머물고 천막을 치라면 쳤습니다. 천막도 넓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하라는 대로 하고, 사람도 누구를 쓰라면 그대로 합니다.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인류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서 모세를 꼽습니다. 1998년도 12월 4일자 타임지가 커버스토리로 모세를 다루면서 3,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삼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모세의 활동을 들여다보면 모세를 막대기로 대체해도 다 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에 자기의 의식이 참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독무대로 모세의 생애를 무대 삼아서 활동하셨던 것처럼, 아기 때에 왕자가 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모세가 성인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상태에서도 이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모세는 소통하는 자라기보다는 그냥 죽어있는 자이고, 죽어있는 자로써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가 됩니다. 마치 밤에 경포대 호수에 달이 비치는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경포대 호수 주변의 트랙을 걷다보면 호수에 비친 달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체성 안에서 갖고 계셨던 계획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통합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세 캐릭터와 십자가의 요셉 캐릭터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2~3살 때에는 소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위일체예요.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사위일체'
어떻게 감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인간이 보태져서 사위일체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위일체가 되기 위해서 모세는 없는 겁니다. 모세가 없어야 사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17: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성령을 통한 교통으로 가능해지고, 삼위일체인데 그렇게 성령을 통한 교통에 의해서 하나가 되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라고 하시니 사위일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분이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네 번째 위격인 모세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살 아기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이 제로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사위가 일체가 됩니다.
제로 원으로 이야기하자면 1, 1, 1로 삼위일체의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거기에 제로가 하나 붙는 것입니다. 제로가 붙음으로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제로 속으로 고스란히 나

타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도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고, 선민들이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광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사랑하겠느냐고 따지고 물으신 것이 광야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14: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하신 다음에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말대로 요셉이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의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요셉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고,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나타나셔서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를 하면서 '요-모세 혹은 모-요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세의 2~3살 때의 아기로 돌아갑니다.
내 삶의 의식적인 참여 제로의 상태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소통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깊은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걱정을 안고 기도를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알고, 나의 걱정과 계획과 소원에 대해서 죽는 기도를 깊이 드리다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틈새가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밀착이 됩니다.
그 증거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주님이 서로에 대해 누리셨던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고, 이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봄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빌2: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던 것처럼 요셉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일도 해야 하잖아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주체성 안에서 계획되어진 그 내용들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요셉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땡 잡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뭐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을 하늘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승천하신 주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들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교통하시는 그 자리와 그 교통하시면서 느끼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똑같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되고, 이 땅 위에서 펼쳐질 사건들에 대해서 요셉이 되는 것이고, 모세와 요셉 중에서 고민할 것 없이 짬짜면처럼 '요-모세 혹은 모-요셉'이 되는 것인데,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요셉과 모세에게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영적으로 감지되는 삶을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